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 감수 : 이언경 · 전화번호 : 051-797-4780 · E-mail : kdong@kmi.re.kr

Contents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싱가포르 해협 해상강도 급증 ... 장기화 될 경우 공급망 리스크로 확대 전망

▶ 유럽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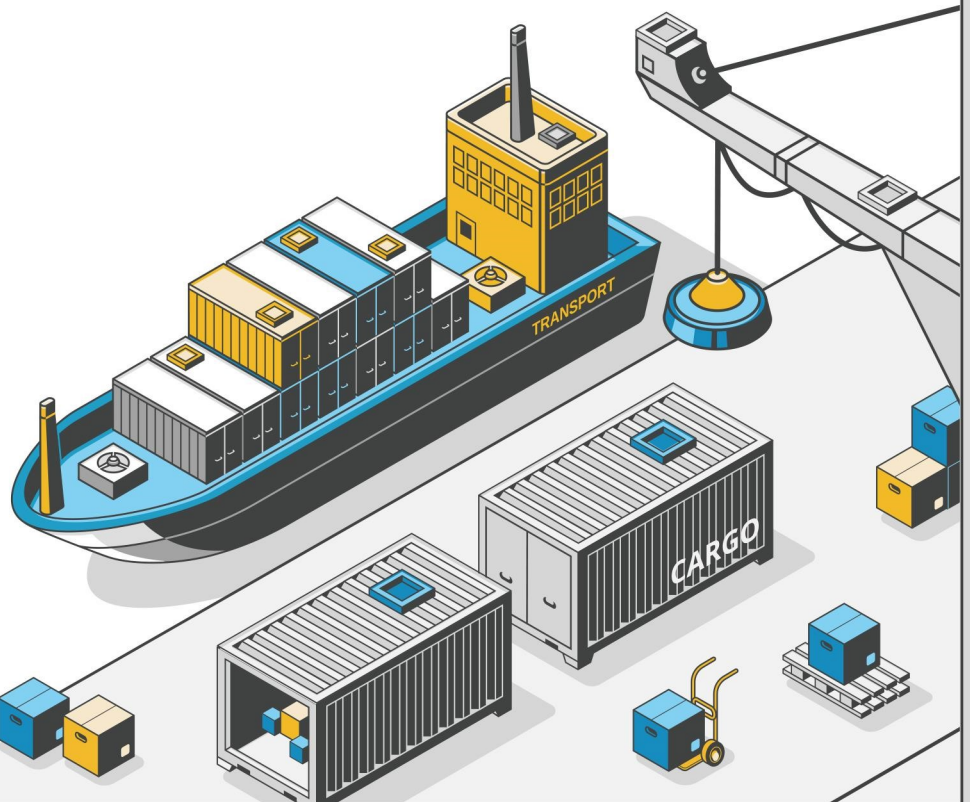
- 프랑스 주요 항만파업 지속 ... 내륙운송 차질 우려 확대

▶ 미주·중남미 물류 시장 동향

- ILA-USMX 간 신규 노사 협정을 위한 비준투표 일정 돌입

▶ 공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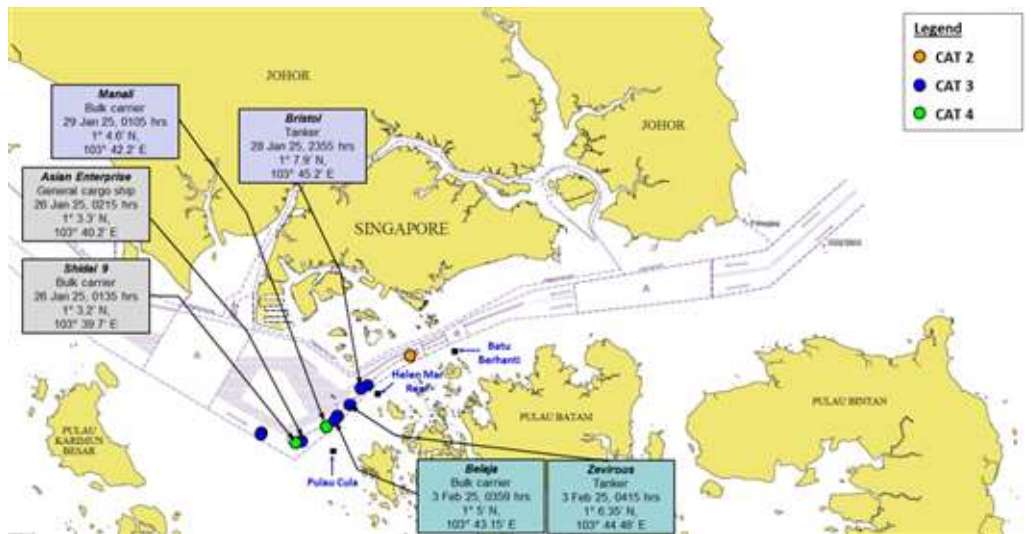
-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싱가포르 해협 해상강도 급증 ... 장기화 될 경우 공급망 리스크로 확대 전망

- ▶ 최근 싱가포르 해협에서 해적 활동 및 도난 사건 증가 등 해상 강도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해당 경로를 활용하는 해운·물류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RECAAP-ISC)에 따르면 올해 1월 한달 동안 싱가포르 해협 동쪽 항로를 향해하는 선박에서 11건의 해상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11건의 사건 중 1월 말 ~ 2월 초 사이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6건의 사건이 발생함(1월 26일 아침 2건, 2월 3일 아침 2건, 1월 28일~29일 밤 2건 등)
 - 11건의 사건 모두 플라우 쿨라와 헬렌 마르 리프 암초 등 필립스 해협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엔진 관련 부품이 도난당하는 등 선박 운항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싱가포르 해협 해상강도 발생 위치 (2025년 1월 1일~2월 3일)



자료: <https://www.recaap.org/>(검색일: 2025.02.05.)

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

- ▶ ReCAAP ISC에 따르면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으며, 선박 운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순찰 및 감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함
 - ReCAAP ISC는 싱가포르 해협을 비롯한 인근 해역의 순찰 및 경계를 강화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상 강도 등 범죄 발생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야간에 위험지역 및 인근 해협 통과시 순찰 및 감시를 강화하고 강도 사건 발생 시 ReCAAP ISC 모바일 앱을 사용해 가장 가까운 연안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권고함

- ▶ 싱가포르 해협은 말라카 해협 및 아덴만·홍해 지역과 함께 전 세계 해상 범죄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로 해상 강도 사건 등 선박 운항에 위협이 지속될 경우 공급망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기준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총 67건으로 전 세계 해상 범죄의 약 40%에 달하며, '23~'24년 월평균 5.5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상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찰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싱가포르 해협의 해상 범죄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사건·사고 발생 정보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프랑스 주요 항만파업 지속... 내륙운송 차질 우려 확대

- ▶ 프랑스 주요 항만 노조는 근무 환경개선 및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로 파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3년 초 최초로 시작된 파업은 이번 달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동 파업은 리아브르항, 마르세유-포스항, 생나제르항 등 프랑스 주요 수출입 '컨' 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리아브르 및 마르세유-포스는 항만 연계 철송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파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항만 노조는 지난달 말 48시간 총 파업을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철송 및 트러킹 등 내륙 운송에 대한 차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 항만 파업 현장



자료: <https://www.railfreight.com>(검색일: 2025.02.05.)

- ▶ 이번 달까지 부분 파업이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만 내 '컨' 반출입 제한 등으로 내륙운송의 지연 및 병목현상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항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됨
 - 지난 달 발생한 48시간 파업 시행으로 항만 내 대부분 업무가 중단됐으며, 장시간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장기간 대기하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 장기화될 경우 일부 선사는 함부르크 및 앤트워프 등 인근 항만으로 우회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 주요 수출입 항만은 철송 연계 비중이 높으나, 철도 종사자 또한 파업에 동참하면서 철송 운행에 차질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트러킹으로 내륙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병목 현상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화주 협회(AUTF)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항만 운영 및 화물 운송 중단, 물류비 증가 등 재정적 영향을 비롯해 전반적인 수출입 물류의 중단 가능성을 우려함
- 실제 잦은 항만파업으로 인해 체선료, 컨테이너 보관료뿐 아니라 주변 항만으로 우회 비용 등이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물류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운송 지연 및 병목 현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전역으로 물류 운영에 차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프랑스 정부와 노조 간 대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항만파업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2월 내 예정된 잦은 파업으로 영향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됨
- 항만파업으로 항만 운영 중단 및 내륙 운송에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유럽 전역의 물류 공급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ILA-USMX 간 신규 노사 협정을 위한 비준투표 일정 돌입

- ▶ 국제항만노동자협회(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이하 'ILA')는 2월동안 미국해사연맹(United States Maritime Alliance, 이하 'USMX')와 신규 노사 협정에 돌입함
 - ILA와 USMX는 지난 2년간 진행된 노동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새로운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함
 - ILA는 '24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보스턴, 텍사스 등지에서 파업 이후 '25년 1월 15일까지 임금 협상 주계약을 연장함
 - 이후 '25년 1월 전체 임금 규모 위원회(Full Wage Scale Committee)를 개최하고 2월 첫째 주 14개 항만의 지역 임금 규모위원회(Local Wage Scale Committee) 간 회의를 소집함
 - 본 회의에서 새로운 기본계약에 대한 6년 계약조건을 검토한 이후 미 동부 및 걸프 연안 항만에 등록된 ILA 회원 45,000명을 대상으로 2월 말 전체 투표에 돌입할 예정임
 - ILA의 협상대상자인 USMX 역시 1월 29일 이사회를 통해 신규 계약을 승인함

ILA-USMX 간 신규 노사협정 비준투표 일정 돌입



자료: <https://www.joc.com/article/ila-officials-to-meet-next-week-as-ratification-of-usmx-deal-looms-5934580>, (검색일: 2025.02.06.)

- ▶ 합의된 신규 협정은 최종 합의된 임금인상 폭 및 반자동화장비 도입에 따른 최소 인력 규모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본 계약은 25년 3월부터 6년간 임금의 약 62% 인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만근로자의 최고 임금 수준으로 산정했을 때 시간당 평균 4달러가 인상된 수준임

- 또한, 항만 내 반자동화 기술이 탑재된 하역기기를 도입할 경우 ILA 회원의 최소 고용인력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미 동부 항만의 신규 노사 협정 비준절차 돌입으로 해운·물류업계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관세 확대에 따른 미국 수입업체 타격, 소비재 재고율 상승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5. 2. 17 | 월 | 09:00
3. 14 | 금 | 18:00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①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사업 내용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업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금액
최대 1억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②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 내용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 내 물류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내용
해외진출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인건비, 현장출장비, 컨설팅비 등) 지원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기업 단독 수행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제출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제물류 정보포털(withlogis.c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과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

|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김동환 센터장 T 051-797-4913 E kdong@kmi.re.kr
성현정 전문연구원 T 051-797-4648 E hjsung@kmi.re.kr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공고



제5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단 모집

2025. 01. 24.(금)
-
02. 14.(금)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과정	사업내용	지원 자격	선정규모	사업단별 지원금
성과기반 고급인력과정	해운항만물류 분야 관련 연구지원	해운항만물류학과 개설 대학(대학원) 해운항만물류 학과(필수) 중심으로 IT, 산업공학 등의 학과 참여 가능	4개	연간 100백만원
맞춤형실무 교육과정	해운항만물류 분야 현업종사자 실무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지원	해운항만국제물류 관련 협회, 공공기관, 대학 등(컨소시엄 불가) * 단, 대학은 실무교육이 가능한 대학	2개	연간 70백만원
산학연계 인턴십과정	대학생의 해운항만물류 분야 국내외 기업 인턴십 관련 지원	국내 4년제 대학교	8개	연간 100백만원

제출 방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직접 제출, 우편물 제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3층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우편물 제출은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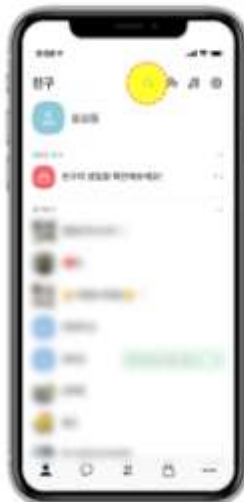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b2kwon@kmi.re.kr)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